

암호 (Password)

지난 1월에 있었던 북한의 인터넷 문제가 미국 있는 한 사람에게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란 것을 어제 알았다. 그 사람은 북한이 자신을 먼저 공격했기 때문에 북한의 인터넷 망을 공격하여 한 달에 두 번이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다. 북한이 한 것을 생각해보면 그렇게 된 일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북한이라는 한 나라를 공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그들만이 가지고 있던 암호를 풀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도 많은 암호가 있지 않은가? 그 암호가 털려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암호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서 한 가지 암호가 아닌 여러 암호를 만들어 나쁜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런데 나를 위하여 만든 암호가 문제가 있다. 그 이유는 전부 기억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내 암호를 어디에다가 적어두기도 쉽지 않고 또한 한 가지 암호로 통일하면 쉽게 털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다. 지난주에도 한동안 사용하지 않던 암호를 기억해 내느라 많은 고생을 했다. 결국에는 새로운 암호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

왜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것인가? 그것은 서로를 믿을 수 없고 또한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세상은 이렇게 더 복잡하고 어렵게 돌아간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또한 나의 것을 숨기며 나를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되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더욱 우울해 지고 슬퍼지며 외로워지는 때에 우리는 살고 있다. 만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령님께 모든 것을 다 고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과연 이러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된다.

하나님은 이때를 위하여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다. 여기에서 서로가 마음을 열지 못한다고 한다면 소망이 없다.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더욱 하나 되고 서로에게 마음을 활짝 열며 암호가 없는 세상을 누리는 것이다. 그 암호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골로새서 1장 26-27절)라고 말씀하신다.

세상에 있는 암호는 위험하다. 그리고 얼마 지나면 새로운 것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도둑을 맞을 수도 있다. 하지만 천국의 암호는 변하지 않는다. 천국은 결코 좁지 않다고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늘 기억하며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에 그 거룩한 암호를 기억하고 말하면 세상의 일이 열리는 정도가 아니라 천국의 문이 열리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에 생명이시고 영원하시며 지금도 동행하여 주시는 위로이시다. 세상의 암호는 잊고 새로이 만들며 옆치락뒤치락해도 예수만이 나를 살리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늘 외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다.

지난주 새로운 암호를 또 만들었다. 실은 매달 그렇게 하는 것 같다. 기억력의 문제도 있는 것 같다.